
2024년 군사시설 주변지역 갈등 예방 및 해결 선진지 우수사례 공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목 차

I	연수 개요	1
	1. 연수목적 및 필요성	1
	2. 연수 일정	1
	3. 대상지 선정 및 연수목표	2
	4. 연수일정	3
	5. 연수자 명단 및 역할	4
II	연수국 일반현황	5
III	주요 방문기관	7
	1. 오키나와현 기지대책과	7
	2. 기노완시 기지정책부	15
	3. 나하시 상공회의소	22
	4. 아메리칸 빌리지	25
	5. 국제거리	28
	6. 국제거리	29
IV	연수결과	31

1. 연수목적 및 필요성

- 충남도에는 다수의 군사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주변 지역주민들의 환경피해, 정주 여건 하락 등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군사시설 관련 공공갈등에 대하여 개별적·단편적 갈등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운 상황임
- 아산시에는 인접한 자치단체에 대규모 미군부대가 입지하여, 항공소음·환경오염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위협받고 있으나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적음
- 또한 군사시설은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시설이지만 비선호 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이전·축소 요구가 크나, 최근에는 군사시설의 감축이 지역 내 경제활동 축소 및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영향이 나타나 면밀한 갈등관리가 요구됨
- 이에 군사시설 관련 공공갈등에 대하여 단편적인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충남도 통합형 갈등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도입과 추진이 필요한 시점으로 민·관·군 협력 사례조사를 통한 정책 수립, 갈등 예방 및 관리에 접목하고자 함

2. 연수일정

- 기 간 : 2024. 10. 21.(월) ~ 10. 25.(금)(4박 5일)
- 방문국가 : 일본(오키나와)
- 연수인원 : 11명(도 3, 시·군 51, 충남연구원 3)
- 방문목적 :
 - － 군사시설 입지 갈등과 해결 과정의 주민 참여, 민·관 협력체계 등 갈등관리 사례 조사

3. 대상지 선정 및 연수목표

○ 대상지 선정 사유

- 일본 내 미군시설 면적의 약 70%가 오키나와에 집중(184.83km²) 되어 있어 주민피해 지원, 환경 문제 대응, 반환부지 개발 지속 추진중임
- 오키나와는 기지 반환 및 반환부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지역 주민 피해 조사와 보상, 미군기지 반환 후 겪는 사회적 문제점 등이 충남도 사례와 유사점이 많음
- 오키나와의 군사시설 관련 갈등관리 정책 운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조사하여, 충남도내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민·군 상생, 통합 갈등관리 방향 등 정책적 시사점 도출 가능

○ 연수기관 및 연수 목표

기관명	연수목표
① 오키나와현청	- 군사시설 관련 정책 부서 역할 및 관련 정책 조사 - 주변 지역 소음 등 민원해결 정책 대응 및 사례 조사
② 기노완 시청	- 군사시설 관련 정책 부서 역할 및 관련 정책 조사 - 주변 지역 소음 등 민원해결 정책 대응 및 사례 조사
③ 오키나와현 상공회의소	- 군사시설 주변지역 경제적 효과 발생 사례 조사 - 민·관·군 협력을 위한 상공회 노력 조사
④ 아메리칸 빌리지	- 반환된 미군기지 부지에 미군들을 위한 쇼핑, 레스토랑 등의 문화시설 등을 지을 목적으로 미국스러운 분위기의 타운을 건설 - 군사시설 주변지역 경제적 영향 사례 조사
⑤ 국제거리	- 전쟁 후 도시 복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전한 장소 - 군사시설 반환 지역의 활용사례 조사
⑥ 나하신도심 공원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40년동안 미군기지로 활용되다 1987년 반환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활용되며, 재해발생시에는 방재공원으로 활용 - 군사시설 반환 지역의 활용사례 조사

4. 연수일정

일자	장소	주요일정 및 내용	비고
1일차 9.21.(월)	한국 (인천) ↓ 일본 (오키나와)	▶출국 : 인천(09:10) ✈ 오키나와(11:40) → 총 소요시간(비행 2시간30분) ▶[사례조사] 기지 주변 소음 발생 및 관리 사례 답사	* 항공
2일차 9.22.(화)	오키나와	▶[기관방문] 오키나와현청 기지정책부서 ▶[사례조사] 기지반환 재개발 지구 답사	* 버스
3일차 9.23.(수)	오키나와	▶[기관방문] 기노완시청 기지정책부서 ▶[사례조사] 신도심 공원조성 사례 답사	* 버스
4일차 9.24.(목)	오키나와	▶[기관방문] 오키나와현 상공회의소 ▶[사례조사] 국제거리 개발 사례 답사	* 버스
5일차 9.25.(금)	일본 (오키나와) ↓ 한국 (인천)	▶입국 : 오키나와(12:50) ✈ 인천(15:20) → 총 소요시간(비행 2시간30분)	* 항공

5. 연수자 명단 및 역할

○ 연 수 자 :

연번	소속(부서)	직급(직위)	성명	비 고
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지방서기관	전 상 욱	단장
2	충청남도 새마을공동체과	지방행정사무관	김 용 찬	
3	충청남도 새마을공동체과	지방환경주사보	최 은 혜	
4	공주시	지방행정사무관	김 규 태	
5	아산시	지방기술서기관	방 효 찬	
6	아산시	지방시설주사보	황 태 선	
7	서산시	지방행정서기	최 준 영	
8	금산군	지방행정서기	서 희 섭	
9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전문연구원	장 창 석	
10	충남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박 상 현	
11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연구원	임 다 정	

○ 역 할 :

연번	소속(부서)	역할 및 임무
1조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방문 시 연수단 행사 안내 · 연수단 실무 및 안내 · 연수단 안전 및 이동경로 사전점검 대응 · 항공, 숙박, 식당 등 예약상태 확인 · 연수 보고서 작성
2조	충남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 총괄 기획 · 주요 기관방문 질문 및 토론 준비 · 기관방문 시 Q&A 대응 · 연수 보고서 작성
3조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기관방문 질문 및 토론 준비 · 기관방문 시 Q&A 대응 · 연수 보고서 작성

■ 일본¹⁾

- 일본국(日本国), 통칭 일본(日本)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입헌군주제 국가임
- 동쪽으로는 태평양, 서쪽으로는 동해에 면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동중국해의 타이완 섬 인근에서 북쪽의 오호츠크해에 이르는 일본 열도에 자리함
- 일본 열도의 본토는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총 네 개의 큰 섬으로 구성됨
- 인구는 약 1억 2천만 명으로 세계 12위이며, 많은 인구에 비해 국토 면적은 상대적으로 좁은 편이기에 인구 밀도가 높음
-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일본의 정치와 외교는 연합군 최고사령부하에서 성립된 일본국 헌법과 미일안전보장조약에 기초해 옴
- 일본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선진국이자 강대국 중 하나임
- 일본 엔은 일본의 거대한 내수와 자산 규모, 선진적 경제 구조, 고도의 미일관계 등에서 오는 안정성 덕에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며, 미국 달러, 유로와 함께 세계 3대 통화로도 꼽히고 있음
- GDP는 미국, 중국, 독일에 이은 세계 4위이며, 국부(國富) 규모 3위, 대외순자산 규모 1위, 주식시장 규모 3위, 외환보유고 규모 2위, IMF 투표권 2위 등 손꼽히는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음
- 비서양권 국가 중 최초의 OECD 가입국이자 유일한 G7 회원국이기도 함

1) 나무위키(www.namu.wiki) 요약 정리



국 명	일본국(日本, Japan)
위 치	동북아시아
수 도	도쿄(東京, Tokyo)
인 구	1억 2404만명 (2024,4, IMF)
면 적	37만 8000km ² (한반도의 약 1.7배)
기 후	온화, 다습(년평균 기온 9℃)
언 어	일본어
종 교	神道(Shintoism), 불교, 기독교

*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https://www.mofa.go.kr/>) 참조

1. 오키나와현 기지대책과

■ 방문개요

- 기관명 : 오키나와현 기지대책과
(Military Base Affairs Division Okinawa Prefectural Government)
- 방문일시 : 2024. 10. 21.(월), 14:00~16:00
- 면담자 : Nakasoko Ryoichi(Section Chief)
- 주 소 : 1-2-2 Izumizaki, Naha City, Okinawa
- 연락처 : +81-98-866-2460
- 홈페이지 : <https://www.pref.okinawa.lg.jp>

■ 방문 주요 내용

- 오키나와현은 일본의 남쪽 류큐 열도 가운데 위치한 지역으로 면적은 2,280.98km², 인구는 2024년 9월 30일 기준 1,467,065명임
- 오키나와현은 태평양 전쟁 말기 미군이 점령한 이후 1972년 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의 통치를 받음
- 미군의 일본 복귀 후에도 미군 기지가 상주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오키나와현의 중요한 현안 문제로 남아 있음
- 오키나와현의 미군기지는 일본 국토 면적의 0.6%에 불과하나 제일 미군 전용 시설의 70.6%가 집중되어 있음. 이러한 면적은 오키나와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 동북아 최대 미공군기지인 가데나 공군기지(Kadena Air Base), 후텐마 미 해병대 기지(MCAS Futenma), 요미탄 보조비행장, 화이트 비치 훈련장, 나하 군항, 마키미나토 보급기지, 헤노코 탄약창기지, 북부 훈련장, 카데나 탄약창기지가 입지함

-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입지지역의 23%만 국가소유이고 나머지는 시정촌 및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개인의 소유 비율은 40%임
- 오키나와에 입지한 미군 기지들은 주민의 생활, 자연환경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1972년부터 2015년말까지 항공기 관련 사고는 676건이 발생하였으며, 실탄 사격으로 인한 화재로 약 3,796ha의 토지가 소실됨
 - 군사시설 주변지역에서는 독성물질이 발견되고 있으며, 항공기 소음은 주변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미군기지의 존재와 운영은 오키나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중임
- 같은 기간동안 미군과 미군가족에 의한 범죄는 5,896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574건은 강력범죄임
- 오키나와에서 기지 관련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 30.4%에서 2013년 5.1%로 낮아짐



- 최근에는 미군 기지로 사용되던 토지의 반환으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군기지의 존재는 현재 오키나와의 경제 발전에 가장 큰 장애물임
 - 토지 임대료 등 토지 반환 전 3개 지역의 총 직접 경제 효과는 89억엔 (8400만 달러)였으나, 토지 반환 후 경제 효과는 28배 증가하여 2459억엔 (23억 달러)가 됨

- 고용은 당시 기지 내 근로자 327명에서 72배 증가하여 23,564명이 됨
- 세수입은 9억 8000만엔(925만 달러)에서 298억엔(2억 8200만 달러)로 30배나 급증함
- 구 군사기지 부지 재개발로 인한 경제 효과는 토지 반환 전 기지 주도 경제를 훨씬 능가하고 있음



- 오키나와는 기존의 문제가 발생한 기지들이 이전을 추진중이나 새로운 입지가 오키나와섬 내로 결정되면서 기지 반환, 새기지 입지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일본내에서 중앙정부 건의,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군과의 대화를 진행중이며,
 - 일본내에서의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워싱턴 DC에 군사 시설 입지 문제에 대한 홍보, 전파를 위한 사무소를 개설함
 - 사무소에서는 군사시설 관련 관계자 면담, 협의, 문제점 전파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음

■ 주요 질의·응답 내용

- 오키나와는 큰 규모의 미군 주둔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미군 군사시설의 입지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오키나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서 유일하게 미군이 상륙한 곳으로 당시 2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함. 1972년까지 미군 통치가 이어졌고 그 후 일본으로 반환됨
 - 오키나와현은 현재 일본내 미군 시설의 79.3%가 입지하고 있지며, 일본 본토의 미군기지는 반환되고 있으나 오키나와내의 반환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약 1만 8천ha에 미군기지가 입지하여 항공기 사고, 자연파괴 등 미군으로 인한 사고는 오키나와 주민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1965년에는 미군기지 관련 소득이 오키나와 총 소득의 40.4%를 차지하였으며, 1972년 15.5%, 현재는 5%까지 미군에 의한 경제 의존도가 낮아짐
 - 오히려 반환공여지를 개발할 경우 경제적 이익 28배, 고용자수 27배 증가 등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기치반환과 공여지 활용이 필요한 시점임
- 영향은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과정에서 자치 단체의 주요 역할과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 부정적인 측면에서 오키나와 주민의 안전과 안심을 위한 대책 마련중이며, 지역내 상황을 파악하고 일·미 양쪽에 전달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부정적 요인의 해결, 피해사례 전파 확대를 위해 정기적 심포지움 개최를 통한 대외알림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사회의에 오키나와 사례와 타국가 사례를 알리고 미국에는 워싱턴 dc에 설치된 출장소를 통해 홍보하고 있음. 홍보를 위해 오키나와현 지사가 미국에 방문해 실상 전달한 사례도 있음

- 중앙정부의 군사시설 관련 정책과 자치단체의 정책이 합치되지 않을 경우 협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오키나와의 기지문제에 대한 인식은 중앙정부와 오키나와현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개별적 사항에 대한 합치는 어려움
 - 자위대 시설에 대한 지사의 반대의견 전달을 통해 정식 철회된 사례가 있으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현안 등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함
- 군사시설은 기피시설로 인식이 되어 있어, 주민들의 시설 반대운동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이를 타개하고 입지 갈등을 해결하였는지?
 - 기지로 인해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지주변 지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책은 주로 일본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 법률로서 보장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학교 소음 방지 구조물, 주택소음 방지 구조물 설치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 기지피해로 인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 사격장, 박격포 등 사격 소음 피해도 상당할 거 같은데, 이런 민원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사격훈련, 포탄훈련 등으로 인한 피해는 최근 2017년 4월, 2018년 6월에 발생한 사례가 있음
 - 훈련중 포탄이 유실되고 산불, 조명탄 낙하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주민밀집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훈련 중지를 요청함
 - 이러한 훈련에 대한 대비는 방위성과의 사전 연락이 필요하나 자세한 훈련내용에 대한 통보는 없음. 현정부는 보다 자세한 훈련 내용 통보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미군기지와 지자체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이 구축되어있는지? (미군기지 최초 연락 방법 등 핫라인 구축 절차)
 - 오키나와현에는 기지대책통괄감이라는 직책이 존재하며 해병대와 연락을 주 업무로 하고 있음
 - 미군에 대해 보다 수준높은 대응이 필요할 경우 오키나와 연락 조정관을 활용하고 있음

- 미군 연중행사에는 오키나와 현이 참석하는 등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군 사건사고 발생시 미군이 일본정부, 오키나와 현으로 통보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다만 작년 12월, 올해 5월 미군에 의한 성폭행 문제가 발생했는데 현정부에는 이에 대해 통보 받은 바가 없어 미군, 중앙정부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재발방지 의견을 전달받음. 앞으로는 이를 위한 새로운 연락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미군의 거주가 장기화되면서 미국문화와 일본문화의 병합, 병존, 갈등 등 발생한 문화 변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과거 오키나와는 류큐왕국이라는 독립 왕국이었으나 미군과 교류를 통한 독특한 문화 생성되고 있음
 - 스왑, 콘크리트 주택가 등 미군으로 인해 융합된 새로운 문화 발생하였음
- 아산시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헬기소음임. 사전 훈련 정보는 어떻게 파악하는가?
 - 사전통보가 약속되어 있으나 어떤 훈련인지는 통보되지 않음
- 소음피해에 대한 현금 보상사례가 있는가?
 - 소음피해는 일본정부의 정책에 의해 보상하고 있으며 재판을 통해 지급금을 결정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지원은 공공시설 설립과 같은 지원이 주로 이루어짐
- 미군 기지로 인한 환경피해 사례는?
 - 유기불소화합물이 외부로 유출되어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일본의 조사권한 없음
- 한국은 군소음법, 민간소음법이 따로 적용되고 있음. 일본의 사례는 어떠한가?
 - 미군에 대한 일본법 직접 적용은 어려운 상황이며, 국내법도 미국 항공기에는 미적용되고 있음
- 미군 군사시설 피해 사례 조사를 위해 한국에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은 가능한가?
 - 경기도에서 초청 받아 오키나와 사례를 전파한 적이 있음
 - 충청남도와의 교류를 희망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가 더 필요함



2. 기노완시 기지정책부

■ 방문개요

- 기관명 : 기노완시 기지정책부(Military Base Affairs Policy Department)
- 방문일시 : 2024. 10. 22(화), 14:00~17:00
- 면담자 : Taira Hiroyasu(Section Chief)
- 주 소 : 1-1-1 Nodake, Ginowan City Okinawa
- 연락처 : +81-98-893-4462
- 홈페이지 : <https://www.city.ginowan.lg.jp>

■ 방문 주요 내용

- 기노완시는 오키나와현의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부와 중부를 연결하는 교통상의 요지임
- 면적은 19.80km²으로 인구는 2024년 9월 30일 기준 100,368명임
- 기노완시는 이용할 수 있는 평지가 적은데 비해 시 중심부에 후텐마 비행장이 입지하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렵고, 비행장 주변에는 학교, 공공시설 등이 많이 존재하여 끊임없는 추락 위험, 소음 피해에 노출되어 있음



- 후텐마 비행장의 면적은 약 4,758km²으로 도쿄도 100개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면적의 24%가 비행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 기노완시의 인구밀도는 2024년 1월 기준 5,067명/km²이나 기지면적을 제외할 경우 7,167명/km²으로 증가하여 도쿄도(6,403명/km²), 오사카부(4,638명/km²)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 후텐마 비행장으로 인한 피해는 환경오염, 소음피해 등이 주로 나타남
 - 환경성이 정하는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일수는 2022년 190일임
 - 연간 소음 발생 횟수는 2022년 기준 12,469회로 하루 34.2회의 소음이 발생되고 있어 기지 주변에서는 일상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생활이 지속되어 피해가 발생중임
 - 그동안 측정된 최고 소음은 주간 124.5dB(2019년), 야간 101.1dB(2021년)이었으며, 2022년은 최고 소음 주간 118.8dB, 야간 100.9dB로 나타남
- 후텐마 비행장에 상주하고 있는 비행기는 58기이나, 외부에서 훈련을 위해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증가하고 있어 소음피해는 더욱 가중되고 있음
- 이외에도 미군기가 주택지상공을 통과할 경우 TV가 일시적으로 수신장애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은 비행장으로 인한 피해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 기노완시의 재정중 후텐마 비행장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지관계 수입²⁾은 일반회계 세입액의 약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기지의 입지로 인한 도시 인프라 정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음
- 미군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최근 3건이 발생함
 - 2004년 8월 오키나와 국제 대학에 미군기 헬기 추락 사고 발생



2) 기지 입지로 인해 생기는 제비용이나 반환지의 정비등에 관련된 제정비에 대해 국가에서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을 계상한 것

- 2017년 12월 후텐마 제2초등학교 미군기 헬기창 낙하사고 발생
- 2020년 4월 거품소화제 누출사고 발생



- 기노완시에서는 후텐마 비행장의 이전, 반환, 피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중임
 - 미군기에 의한 사고, 소음이 심해질 경우 오키나와 방위국, 미 해병대, 내각에 직접적인 항의·요청을 하고 있음
 - 중앙정부, 오키나와현, 기노완시로 구성된 「후텐마 비행장 부담 경감 추진 회의」를 구성하여 운영중이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중임
 - 또한 미군, 기노완시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쿼터리 미팅을 추진중이며, 미군은 기노완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류와 문화이해에 노력하고 있음
 -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용시설 건립, 학교지원 사업, 주택 방음 사업 등을 추진중임
- 기노완시에서는 후텐마 비행장의 이전, 반환에 따른 장기 계획을 준비중임
 - 2022년 7월 후텐마 비행장의 이전, 반환이 결정되면서 비행장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중임
 - 후텐마 미래 기금을 신설하여 기지 이전, 반환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임

■ 주요 질의·응답 내용

- 오키나와는 대규모의 미군 주둔 지역으로 미군 군사시설의 입지가 기노완시 지역사회에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오키나와의 미군 군사시설중 후텐마 비행장은 기노완시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노완시는 이를 둘러싼 도넛 모양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음
 - 비행장 주변에는 학교(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5개교, 고교 4개교 · 대학 1개교), 병원 등 공공시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비행장이라고 여겨지고 있음
 -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일상적인 피해로서 미군 항공기에 의한 소음 피해(특히 야간 소음, 엔진 조정음 등), 제트 전투기 등의 외래기의 비행, 지상 디지털 방송 수신 장애 등이 있으며, 그 외, 항공기 사고나 미군·군인 가족 등에 의한 사건·사고 등 기지로 인한 위험성이 시민들에게 과중하게 전달되고 있음
 - 도시의 개발을 위해서는 중심부에 위치한 후텐마 비행장을 우회해야 하는데 이는 효율적인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 시의 일반 회계 세입액에 차지하는 기지 관계 수입 비율은 10.3%임
※2022년도 : 일반 회계 약 562억엔 중, 기지 관계는 약 58억엔
 - 오키나와현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후텐마 비행장의 반환 후의 경제 효과는 반환 전의 32배가 된다고 하는 결과 있음
 - 가장 최근 지역의 환경피해는 2020년 4월에 후텐마 비행장의 격납고로부터 PFOS 등을 포함한 거품 소화제 누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후텐마 비행장 주변의 용수, 지하수로부터 환경성이 정한 기준치를 초과한 값이 검출되어, 후텐마 비행장과 관련성이 높아 오키나와현이 지속적으로 조사중임
- 이러한 군사시설로 인한 영향은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대처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과 정책은 무엇인가?
 - 크게 세가지 정책과 노력을 추진중이며 첫 번째는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 상황 파악임.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 불만을 접수받고 있으며, 소음 측정(시내 8개소, 24시간 측정), 외래기의 비상 상황, 지상 디지털 수신 장애 등의 상황 파악에 노력하고 있음

- 두 번째로 미군기지 반환, 시부담 경감을 향한 대처 노력임. 정부·오키나와현·기노완시의 3자로 구성된 「후텐마 비행장 부담 경감 추진 회의」에서 협의를 실시하고 있음. 분기별로 미팅을 실시중이며 각 미군 시설로 인한 문제를 해결이 가능한 과제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개인·단체들의 기지 시찰, 상황 설명 및 정보 발신을 실시하고 있음. 미군과의 교류를 위해 미군이 실시하는 자원 봉사 활동에 관한 지역 단체와의 조정역할, 축제 등 이벤트 참가, 그 외, 외무성 주최의, 기지 소재 고교생·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쿄·미국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중임
- 국가의 군사시설 관련 정책과 자치단체의 정책이 맞지 않는 경우, 협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일·미 정부, 미군에 대한 항의·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오키나와현·기노완시로 구성된 「후텐마 비행장 부담 경감 추진 회의」를 통하여 협의를 실시함
- 군사시설이 비선호 인식되어 주민들의 반대·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
 - 후텐마 비행장은 반환이 합의되고 나서 28년 경과했으나 아직 반환되고 있지 않음
 - 시민들은 후텐마 비행장의 하루도 빠른 폐쇄·반환을 원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만, 갈등 발생시 현지 레벨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대응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후텐마 비행장의 조기 폐쇄·반환이 이루어져야만 하며, 나고시 베노고에 있는 후텐마 비행장 대체 시설 건설의 완성까지 약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는 주민의 부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중임
- 군사시설로 인한 사격장, 박격포 등 사격 소음 피해도 많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
 - 후텐마 비행장에서는 사격 훈련은 행해지고 있지 않고, 사격 소음에 대한 불만은 제기되지 않음

- 기노완시에서는 시민의 불만을 접수하기 위한 핫라인(110번 전화)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메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대응하고 있음
- 기노완시에서는 군사시설 인근 주민에게의 피해 보상금을 실제로 지원한 사례가 있는가?
 - 기노완시가 시민에 대해 피해 보상을 실시한 사례는 없음
 - 그러나 미군, 군사시설로 인한 손해를 받았을 경우 오키나와 방위국에서 손해 배상 수속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기노완시가 미군기지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는가?
 - 후텐마 비행장이나 다른 미군 시설과 관련 연락은 자치단체의 섭외관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 미군, 미군가족의 거주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문화와 일본 문화의 병합, 병존, 갈등 등이 발생한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후텐마 비행장에서는 1년에 1번 비행장 내에서 플라이트 라인 페어라고 하는 축제를 개최함. 축제에는 미군인 뿐만이 아니라 일본인도 비행장 안에 들어가 즐길 수 있음. 라이브 쇼, 카 쇼, 미국 독특한 문화 등을 살펴볼 수 있어 현지 축제로 정착중이며, 매년 많은 사람으로 붐비고 있음
 - 그 외에도 미군인의 영어 회화 교실, 시민과 함께 실시하는 청소 활동, 교통 안전 운동, 지역의 전통 행사에의 미군인의 자원봉사 참가 등이 이루어지고 미군이 지역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지역 주민과의 교류가 깊어지고 있음
- 충청남도와의 공동으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은 가능한가?
 - 외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의사가 있음. 충청남도와의 교류를 희망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가 더 필요함



3. 나하시 상공회의소

■ 방문개요

- 기관명 : 나하상공회의소(Nah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 방문일시 : 2024. 10. 24(목), 10:00~12:00
- 면담자 : Atsushi Fukuchi(Executive Director)
- 주 소 : 2-2-10 Kume, Naha, Okinawa
- 연락처 : +81-098-686-3758
- 홈페이지 : <https://nahacc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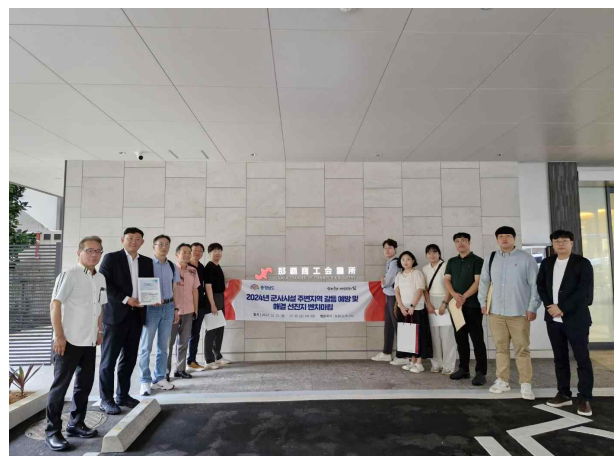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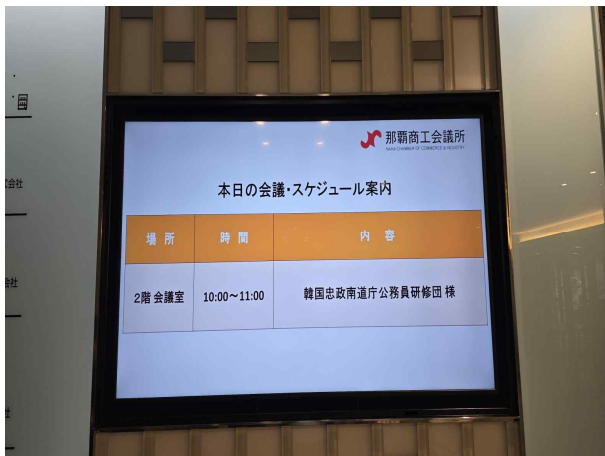
■ 방문 주요 내용

- 나하시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으로 상공업의 개선과 발전을 통해 사회 일반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됨
- 상공회의소는 공공성, 지역성, 종합성 등을 바탕으로 오키나와현의 경제진흥, 주민생활 향상, 상공업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정책 제언의 역할을 수행중임
- 민·관·군 협력의 관점에서 상공회의소의 역할과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청취하고 질의 응답을 진행함
- 오키나와에는 많은 미군기지가 있으며, 이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문제를 가져왔음
- 오키나와 정부와 경제인들은 미군기지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노력하고 있음
- 상공회의소에서는 민간주도의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을 담은 GW2050 프로젝트를 추진중임
 - 프로젝트의 목적은 군항, 군항공기지, 나하공항의 조화를 통해 합리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임
 - 반환 공여구역을 중심으로 산업과 기업을 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를 통해 도시 규모를 확대하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 또한 나하공항을 확장을 통한 인프라 구축과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 질의·응답 내용

- 오키나와의 반환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은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는가?
 - 오키나와는 미군 기지가 반환이 됐을 때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이 쇼핑몰, 주택지 등을 형성하면 주민들이 늘어나는 패턴으로 진행됨
 - 똑같은 시설들이 반복적으로 들어선다면 경제적으로는 처음에는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안 좋은 효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시설을 설계, 확대를 진행중임
 - 이를 위해 오키나와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관광 특화지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프로젝트가 공항, 항구를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은 교통의 요충지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훨씬 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함
- 상공회의소와 같은 민간 영역에서의 개발을 위한 정부와의 소통 방법은?
 - 현재 중앙정부, 지방정부, 상공회의소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음
 - 협의체 구성은 각자의 영역에서 구상을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이루어짐
 - 개발을 위한 예산은 국가에서 관계 법령에 의해 지원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나 민간영역은 협의를 통해 특별한 간섭은 받고 있지 않음
- 민간영역에서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을 주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일단 일본정부에서 민간 주도의 재개발을 많이 유도를 했음
 - 아메리칸 빌리지 같은 경우도 81년도에 민간주도로 재개발을 시작하였으며, 재개발 20~30년이 지나면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찾아가는 지역으로 발전함
 - 공공주도 보다는 민간주도 사업이 사업성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함
- 민간주도의 개발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받는 불편은 없는가?
 -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프로젝트는 지역에 학교, 병원, 공원 등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을 먼저 구상함
 - 이후 산업시설에 대한 배치나 유치를 진행하고 있어 불편은 적다고 생각함

- 국내에서는 민간주도의 재개발이 쉽지 않음. 일본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 재개발로 인한 보상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함
 - 일본은 재개발시 협오시설이 입지하여도 보상액의 1.5배 이상 배상을 기본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한국이 재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보상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함
- 미군,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공회의소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상공회의소는 민간을 통한 교류와 협력에 집중하고 있음
 - 민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군 및 미국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 노력이 지역의 군사시설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함



4. 오키나와 아메리칸빌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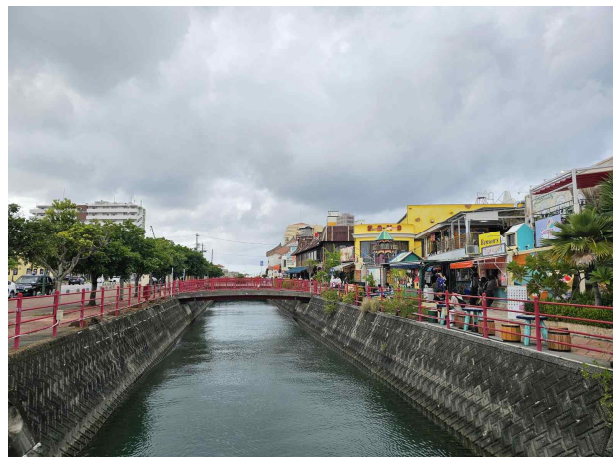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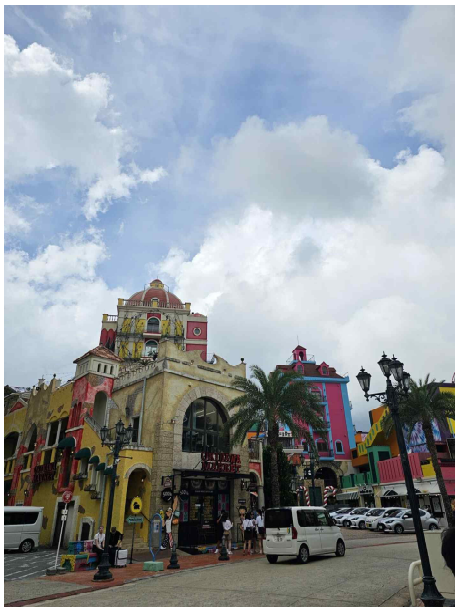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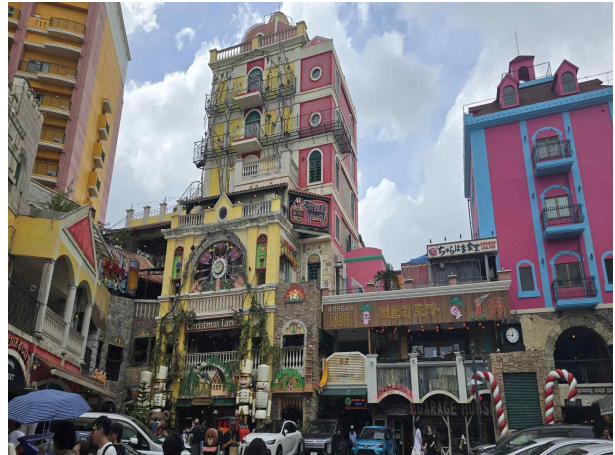
■ 방문개요

- 기관명 : 아메리칸빌리지(American Village)
- 방문일시 : 2024. 10. 23(수), 10:00~12:00
- 주 소 : 沖縄県中頭郡北谷町美浜 (字) 15-69
- 홈페이지 : <http://www.okinawa-americanvillage.com>

■ 방문 주요 내용

- 아메리칸 빌리지는 1981년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은 미군 비행장 부지를 문화공간으로 꾸민 지역임
 - 주일 미군 시설인 캠프 포스터 중 해안에 있던 험비 비행장이 반환되고, 비행장 부지 북쪽에 인접한 해안의 새로운 매립지에 조성됨
 - 주일 미군 시설이 집중된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 미국의 분위기를 내세웠음
- 미국 샌디에이고의 시포트 빌리지를 모델로 하여 구성된 공간으로,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미국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이국적인 지역임
- 아메리칸 빌리지에는 60여곳의 식당, 100여곳의 상점이 있으며,
 - 아메리칸 빌리지는 1997년부터 2004년에 이르는 순차적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2003년 연간 방문객 수는 총 830만명임
- 오키나와 내의 반환지들은 주택지, 공공시설 용지, 농지, 공업용지 등으로 세분화되어 개발되었으며, 아메리칸 빌리지는 상업지역으로 개발된 사례임
- 아산시의 경우 평택지원법의 직접 대상에 해당되지 못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주민들은 미군부대의 이전보다는 피해 저감 노력과 함께 민·관의 협력을 위한 사업을 요청중임
 - 아산시 둔포면과 인근지역에는 미군들의 영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거주 시설 단지, 상업시설들이 증가 추세임
 - 난개발을 막고 집단화를 통한 지역상권의 유지 및 확대, 미군 집단거주 지역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한 인구 증가 효과, 민·군 상생을 통한 양국간 문화교류 확대 등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례임

- 혐오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 군사관련 시설 주변지역의 지역민들의 여가, 휴식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도내 유사시설 입지와 관련된 갈등 발생시 좋은 사례로 활용할 수 있음





[그림] 아메리칸 빌리지 지도

5. 나하 국제거리

■ 방문개요

- 기관명 : 나하 국제거리(Naha kokusaidori)
- 방문일시 : 2024. 10. 23(수), 14:00~17:00
- 주 소 : 沖縄県那覇市牧志 3 丁目 2 - 1 0
- 홈페이지 : <https://naha-kokusaidori.okinawa>

■ 방문 주요 내용

- 나하 국제거리는 오키나와에서 가장 변화한 상업중심 거리임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오키나와 지역은 큰 피해를 입었고, 모든 기반시설이 무너져 복구 작업이 쉽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복구가 이루어진 지역임
- 국제거리는 전쟁의 폐허속에서 다시 일어난 곳으로 ‘기적의 거리’로 불리고 있음
- 국제거리는 오키나와현 현청과 가까운곳에 위치하여 오키나와현, 오키나와시 등의 행정기관 및 민간 기업이 집중되어 있음
- 약 1.6km 길이로 일자로 곧게 뻗은 거리에는 양쪽 길을 따라 백화점, 기념품 가게, 카페, 호텔 등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이 빼곡히 들어섬
- 오키나와의 경제, 산업구조는 초기 미군에 의존하였으나 현재는 미군과 오키나와의 융합된 문화를 바탕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음
- 도내에서도 논산시가 ‘육군병장’브랜드화하여 육군훈련소와 국방친화 도시로써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음
-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에 봉착한 지역에서 군사관련 시설은 지역경제에 양적인 성장을 이루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지역의 문화와 결합되고 특성화를 통하여 질적측면에서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오키나와 사례를 바탕으로 군사시설과 지역경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갈등관리 전략과 운영이 필요함

6. 나하신도심 공원

■ 방문개요

- 기관명 : 나하 신도심공원
- 방문일시 : 2024. 10. 24(목), 14:00~17:00
- 주 소 : Okinawa Prefecture, Naha, Mekarū 2 -3-1
- 홈페이지 : <https://www.city.naha.okinawa.jp>

■ 방문 주요 내용

- 나하시의 신도심은 약 40년간 미군기지로 활용되다가 1987년 반환된 지역으로 반환이후 미군 입지로 인한 도심밀집화를 해소하기 위한 개발이 이루어짐
- 나하시는 11개의 공원의 입지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도로와 모노레일을 설계, 이러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문화시설, 학교, 상업시설 등을 배치하여 심도심안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도록 구상됨
- 나하시 신도심공원은 2001년에 나하시 신도심 지역에 설치된 공원으로, 약 18ha의 넓이를 가짐
- 신도심 지역에 있는 공원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테니스 코트나 농구 코트, 스케이트보드 코트, 조깅 코스, 다목적 광장, 나하시 녹화센터 등이 있음
- 평일, 주말을 불문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각각의 시설을 이용하는 남녀노소를 볼 수 있는 시민들의 휴식 장소임
- 나하 신도심공원은 재해시의 방재 공원으로서의 역할도 있어 유사시에는 헬리포트로서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으며, 녹화센터 지하에는 재해·재난 대비 비축품의 보관 창고가 설치되어 있음
-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을 만들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50%의 보조금을 받으나, 신도심 공원은 오키나와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가 90%의 비용을 부담하고 오키나와현, 나하시가 10%의 비용을 부담하여 조성된 사례임
- 도내 시·군에서는 군사시설과 관련한 주변지역 개발시 비용이 보조되는 경우가 제한적이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 입지에 예산적 제약이 심함

- 실내에 설치된 운동시설, 다목적 광장은 소음으로 인한 외부 활동이 제한적인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화합 행사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임
- 오키나와 사례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충남도, 시·군이 협력하는 형태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필요함



1. 연수 결과 종합

-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조정·관리하는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으나, 복잡화·다양화되고 있는 갈등의 유형으로 인해 새로운 갈등관리 방식이 요구되고 있음
- 도내에서도 도시화, 산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과거 도시의 외각지역에 위치하였던 군사시설의 입지가 점차 도심화되면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정주여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갈등유형으로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된 ‘2024 군사시설 주변지역 갈등예방 및 해결 선진지 우수사례 공무 국외연수’는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단편적으로 대응되던 군사시설 관련 갈등의 관리방식이 통합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공감대 형성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주요 연수내용으로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연수를 통해 군·군사시설과 관련한 갈등의 해결은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함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 나하시 상공회의소 연수를 통해 군·군사시설 주변지역의 개발과 발전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짐으로써 얻게 되는 발전의 성공가능성과 주민편의시설의 건설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음
- 또한 아메리칸 빌리지, 국제거리, 신도심 공원 조성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갈등의 해결 방식이 군·군사시설의 이전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지역문화와 융합되어 새로운 지역의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봄
- 금번 해외연수는 군·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갈등관리의 접근방식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충남도에 직접 적용가능한 사례를 학습하고자, 짧은 기간 다양한 연수지역을 방문하면서 다소 힘든 일정이었지만 충남도, 시·군,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잘 마무리될 수 있었음

- 연수경험을 바탕으로 충남도, 시·군에 필요한 몇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연수의 경험은 2025년부터 충남도 중심의 군사시설 주변지역 통합적 갈등관리 방안의 정책 추진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2. 충청남도 갈등관리의 정책적 함의

- 통합적 갈등관리 방식의 도입
 - 도내에는 많은 군사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군사시설의 입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 지역주민들은 군사시설로 인한 다양한 피해들로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피해에 대해 해당부대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단편적이고 일회성적인 갈등해결방식이 추진되면서 동일한 갈등의 반복적 발생되고 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은 사례들이 다수 나타남
 - 오키나와 사례를 살펴본 바, 중앙정부-지방정부-기초 자치단체간의 상호 협력과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일원화된 문제해결 체계를 갖추고 있었음
 - 또한 민간단체, 주민단체와의 협력과 대화를 통해 현안별로 단·장기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를 통해 충남도에서도 충남도 중심의 통합적 갈등관리 방식이 필요할 것이며, 시·군, 주민, 관계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음
 - 지역에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합적 갈등관리 체계가 추진된다면 정부의 정책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군과 관련하여 부대단위의 대응이 아닌 국방부, 미군의 책임있는 참여와 문제해결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우선적으로 군사시설과 관련한 피해가 심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며, 여기에는 군의 책임있는 참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협의체는 관 중심의 협의체, 민 중심의 협의체, 통합적 협의체 등 다양한 유형의 협의체가 운영될 필요성이 있음

○ 상생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사례지역의 자치단체는 미군과 관련된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부서, 인력이 존재하였으며, 오키나와현청에는 30명의 인력을 배치한 기지대책과가 있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담당하고 있음
- 지방정부는 미군과 관련된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민·관·군의 상생을 위한 정책도 추진중이었음
- 미군 문제에 대한 대외적 홍보, 전파를 통해 미군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양한 시설의 설치, 참여를 유도하여 미군이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융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음
- 도내에서도 미군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는 아산시의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 재방방지 요구 등과는 별개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미군과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에 군사시설과 관련한 발전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장기적 성과를 예측해 볼 필요성이 있음

○ 다양한 기관의 협력 필요

-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은 대부분 자치단체 주도의 공공시설 건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연수에서 살펴본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개발과 발전은 민간영역에 상당한 역할과 책임을 맡기는 체계로 진행되고 있었음
- 이러한 현상은 보다 체계적이고 법제화된 보상과 개발, 발전이 주민관점에서 추진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었으며,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경청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자치단체의 계획 구역 확정, 민간기업의 추진력, 주민의 참여와 의견제시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룬다면 군의 임무수행 여건, 정주여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음
- 단편적이고 일원화된 지원보다는 보다 많은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도내 갈등을 조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노력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